



최근 새 단장으로 광주의 명소가 떠오른 운천저수지(왼쪽)와 풍암저수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도심 '호수 효과'

광주 운천저수지·풍암호수 주변 웰빙공간 각광 ... 집값도 올려

광주 도심에 들어선 호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바꾸고 있다.

최근 새롭게 단장된 운천저수지와 풍암호수 주변에는 한여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시원한 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휴식 공간과 다양한 산책 및 운동코스 등으로 인해 웰빙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명당인 호수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파트나 주택 값도 오르고 있는 추세다.

두 호수를 단장하는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이상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기가 부양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8개월에 걸쳐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7만4020㎡ 규모)에 대한 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예산은 65억원이 투입됐다. 운천 저수지에는 음악분수를 비롯한 관찰 및 전망 데크, 야외무대, 휴

식공간이 새롭게 들어섰다.

최근 조성된 운천 저수지는 단순한 녹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운동 시설이 다양한 아파트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집값을 높이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계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운천 저수지 일대에는 S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122.3㎡(35

평)·105.7㎡(37평) 크기의 400세대이다. 매매는 1억3310만원~1억5000만·1억6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불과 서너달 만에 집값이 수백만원 이상 올랐다.

커피숍·식당·슈퍼마켓 등 주변 상가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찾는 발길이 늘면서 매출도 20~30% 가량 증가했다.

이에 앞서 서구청은 올해 초 풍암호수(24만4587㎡)도 광주의 대표적인 여가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풍암호수에 1.9km 구간의 일주 산책로를 비롯한 생태습지·체육시설·휴양시설·조경시설·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아파트값이 40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광주 B부동산 관계자는 "운천저수지 정비사업에 따라 S아파트가 최대 수혜 아파트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하려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며 "도심권에서 호수·공원이 인접한 아파트는 웰빙 주거지역으로 꼽히는데,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값도 비쌀 뿐더러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9분 / 해질 19시 47분 / 달뜨기 09시 16분 / 달지기 22시 00분

밤부터 한때 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

구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차차흐려져비		22/31℃
	차차흐려져비		22/27℃
목포	구름많음		21/26℃
	구름많음		21/29℃
여수	차차흐려져비		22/30℃
	차차흐려져비		21/29℃
대구	차차흐려져비		21/29℃
	차차흐려져비		21/29℃
부산	구름많음		21/29℃
	구름많음		21/29℃
전주	차차흐려져비		22/30℃
	차차흐려져비		21/29℃
전도	차차흐려져비		21/29℃
	차차흐려져비		21/29℃
전남	구름많음		22/31℃
	구름많음		21/31℃
남원	구름많음		21/31℃
	구름많음		21/26℃
후산도	차차흐려져비		21/26℃
	차차흐려져비		21/26℃

구분	종형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동~남동	1.0~1.5m			

구분	종형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04:45	09:54
	남동~남	0.5~1.5m	16:57	22:02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여수 11:32	05:20
	동~남동	1.0~1.5m	23:58	17: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씨						
최저/최고	23/30	24/31	24/32	24/32	24/32	24/32

'뜨거운 광주' 한달 평균기온 25도

온난화 영향 ... 평년보다 1.8도 높아 관측 이래 최고

최근 1개월(6월11일~7월10일) 광주 평균기온은 25도를 기록,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광

주의 평균기온은 25도로 평년(23.2도)보다 1.8도 높았다.

1개월 간 최고기온의 평균 값인 '평균 최고기온'은 29.8도, 평균 최저기온은 21.5도로 평년보다 각각 2도씩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939년 기

상 관측 이래 3번째로 높았으며, 평균 최저기온도 2번째로 높았다.

이 같이 광주지역은 기온이 최고점인 오후는 물론 온도가 낮은 오전에도 평년 보다 크게 더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강수량은 115.7mm로 평년대비 53.5% 정도로 적었다. 또 강수일 수는 15일로 평년보다 2.3일 많았고, 일조시간은 110시간으로 평년보다 45.4시간 적었다. 비가 적게 내렸지만 비오는 날이 많은데다 일조시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 여름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광주·전남의 평균기온도 23.5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수현기자 yang@

차 과태료 안내면 운전 못한다

차량 번호판 압수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안내할 때까지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무안~마카오 직항 전세기 운항

8월 15일까지 7차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공항에서 마카오 직항 전세가 운항된다. <관련기사 12면> 대로에어로시스템은 14일 "지역민들의 여행 편의를 위해 마카오 항공과 제휴, 오는 25일부터 무안공항에서 마카오행 직항기를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기는 오는 8월 15일 까지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모두 7차례 운항된다. 무안공항 출발

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마카오에서는 새벽 2시40분에 출발, 무안공항에 오전 6시55분에 도착한다. 마카오까지 소요시간은 총 3시간 30분이다.

전세기 개별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으며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하나투어 등은 마카오와 홍콩을 둘러보는 2박 4일 패키지 상품과 마카오·홍콩·심천을 아우르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장·통장 '보호관' 위촉 아동 성범죄 감시한다

경찰청은 14일 이장과 통장 가운데 희망자들을 '아동안전 보호관'으로 위촉해 지역사회의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이장 3만6463명과 통장 5만5402명이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이·통장에게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호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성범죄나 학교폭력, 실종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지역의 우범 지역 등을 경찰에 알려 효과적인 순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흐려져 밤부터 비

예상 강수량 5~30mm

15일 광주·전남지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5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부터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부터 광주·전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14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5~30mm.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상된다.

계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6일 새벽에는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며, 이날 오후에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17일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약해지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14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5~30mm.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큰스님 입적

해남 대흥사의 조실(祖室·사찰의 최고 어른스님)이자 조계종 원로의 원인 천운(天雲) 큰스님이 14일 오전 10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4세, 세수 78세.

1932년 고창에서 태어난 천운 스님은 1958년 선운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1960년대 여러 선원에서 안거 수행한 후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를 지내고 향림사를 창건하는 등



해남군 사찰 중창과 포교에 앞장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흥사 조실과 광주 향림사 조실, 광주 정광 중교교 이사장, 광주 우산 종합복지관 관장 등을 맡았다.

천운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8일 오전 11시 대흥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되며 분향소는 대흥사와 향림사에 마련됐다. 공식 빈소는 대흥사 문의 061-534-55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ravel Innovation Hand Cartery

초대형 여객선, 빈도 - 제주 3시간

새 타고 제주올래?

문의전화 1688-2100

www.hanilexpress.co.kr